

초대시

전혜수 // 은혜와진리교회 권사

라합과 붉은줄

들려오는 소문듣고
 믿음키운 기생라합
 여호수아 명령따른
 두정답꾼 숨겨주네
 삼대안에 숨죽이고
 이른대로 앞드리니
 생과사의 갈림길에 위태로움 피했구나
 붉은줄을 약속받고 기다리는 기생라합
 믿음으로 바라보며 인내하며 기다리네
 주님군대 승승장구
 점령당한 여리고성
 뿌린대로 거두는 삶
 라합에게 적용되고
 형제자매 온가족들
 구원받아 기뻐하니
 들음으로 믿음키운
 기생라합 잘했구나
 붉은줄의 참의미는
 보혈흘린 예수의피
 보배로운 피를발라
 우리모두 구원받세



여호수아 1-2장을 읽으며 붉은줄의 의미를 묵상하다.

CTS, 6.25 70주년 특집 프로그램

특선영화 '사랑의 원자탄' 특집으로 편성

CTS기독교TV(회장 김정철, 이하 CTS)는 6.25 70주년을 맞아 특집 프로그램으로 시청자들을 찾아 갔다.
 먼저, 내가매일기쁘게(진행 최선규, 김지선)에서는 6.25특집으로 6.25 전쟁 참전용사 박영환 장로(정승화목교회)와 한국전쟁 당시 순교의 역사가 담긴 정승화목교회 박경훈 담임목사가 출연했다.
 6.25전쟁 참전 유공자이며 올해 91세를 맞은 박영환 장로는 심지의웅군을 시작으로 칠원 백마고지까지 있었던 참혹했던 6.25전쟁의 실상과 전쟁 가운데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방송에서 나눈다.

다. 그리고 일제시대와 6.25 전쟁 가운데 믿음을 지킨 정승화목교회의 이야기를 박경훈 담임목사가 간증했다.
 '한국교회 특논하다(진행 박종구목사)'에서는 특별히 6.25 전쟁의 슬픔을 안고 있는 철원제일교회(이상욱 목사)에서 사진 녹화했다. 박종구 목사(월간목회)의 사회로 이상욱 목사(철원제일교회)와 박영준 목사(철원제일교회), 이덕주 교수(전 감리교 신학대학교)가 패널로 출연해 70주년을 맞은 6.25 전쟁의 의미와 역사적 배경, 그리고 전쟁 이후 현재 한국교회의 역할에 대해 논했다. 또한 6.25전쟁 70

주년 기념행사로 진행되는 '한국교회 복음통일 기도 성회' 행사 배경과 그 의미를 논한다.
 마지막으로 CTS 전국 21개 지사에서 생방송으로 전하는 '전국교회는 지금'에서는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특집으로 방송했다. 다시 뛰는 우리교회' 편에서는 한국전쟁 당시 해외 참전용사들을 섬긴 포항 양포교회의 사역을 소개했다. 그리고 '신앙의 유산' 편에서는 한국전쟁 당시 이틀에 걸쳐 66명의 성도들이 순교당한 논산 감영의 병참성결교회의 순교신앙과 그 의미를 방송으로 전했다.
 그밖에 한국전쟁 미국 참전용사들을 CTS 미주 지사에서 만나본 'Hello 아메리카'와 손완원 목사의 일대기를 다룬 특선영화 '사랑의 원자탄'이 특집으로 편성된다.



* 방송 안내 * 'Hello 아메리카' 6/25(목) 2:20am, 6/26(금) 3:00pm. '내가매일기쁘게' 6/25(목) 9:00am
 '생방송 전국교회는 지금' 6/26(금) 3:00pm
 '특선영화 사랑의 원자탄' 6/25(목) 6:30pm, 6/27(토) 5:00pm

사설

핵무기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아야한다

북한은 오랜 기간 동안 대한민국을 상대로 대화, 적대관계 등 다양한 관계를 설정해 오면서도 줄곧 자신들이 계획하고 시도해온 핵에 대해서는 조금도 변한 것이 없다. 아니 북한은 여전히 핵무기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고 더욱 공고히 해 왔으며 오히려 핵보유국으로 전 세계에 그 위지를 공고히 해온 것으로 보인다.

미국 과학자연맹(FAS)에 의하면 2020년 4월 현재 북한은 35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몇 년 전 미국의 북핵 전문가인 올브라이트(David Albright) 박사는 2020년에는 북한이 100개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하였다. 북한은 최근 2년 사이 17차례의 단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하여 요격망을 피하여 핵무기를 원하는 곳으로 보낼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대륙간탄도탄(ICBM), 잠수함발사탄도탄(SLBM)으로 태평양으로 나가 미국을 공격하겠다고 한다. 북한은 남북관계를 '대적관계'로 전환하고, 모든 통선선을 차단하고, 개성에 있는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북한의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은 6월 13일 남한에 '비핵화라는 개소리'는 집어치우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북한의

남한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도 없는 맹비난에도 대해 정부 여당은 눈치만 보다가 북한의 핵 포기과 관련하여는 언급도 하지 않은 채 유엔 제재를 뛰어 넘는 지원방안만을 고집하며 미국에 책임을 돌리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인 핵무기에 대해서는 입도 방긋하지 않는다. 북한 핵무기나 최근의 비무장지대(DMZ) 남측 감시초소(CP) 공격,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의 대남 강공 드라이브와 갑작스런 국면전환 등 이러한 행동은 남한 정부 당국자들을 자기를 마음대로 주무르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부와 여당은 북한의 의도대로 종전선언, 독자적 경제지원 등 온갖 구상을 세우려 하고 있다.

그동안의 북한의 행태를 보면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없고 적화통일 야욕도 호전성도 그대로는 것을 분명히 확인했을 뿐이다. 북한의 완전한 폐기(FD)를 달성할 때까지 대북 제재를 그대로 유지하고 완전히 이행해야한다. 북핵제거를 위한 국제공조도 더욱 활성화해야한다. 북한 핵의 무력화를 위해 기도해야한다. '여호에게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우하시며 보호하시며 저자의 눈동자 같이 지켜주소다'(신32:10)

6.25전쟁 70년, 전쟁도 비극도 끝나지 않았다

6.25전쟁은 어떤 구실과 변명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김일성의 북한 공산군이 소련 공산당과 중국 공산당의 절대적인 지원 하에 벌인 용서 못할 민족번역의 범죄 행위이다. 이 전쟁이 얼마나 비극적이었으며 그 피해가 컸었는지는 몇 장의 사진이나 기록물도 다 표현하지 못한 다. 물질적인 피해는 복구하였으나,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친구를 잃은 수많은 이들의 슬픔을 무엇으로 보상할 단 말인가?

우리가 6.25전쟁을 잊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그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은 현재형이라는 것과, 역사의 비극을 잊거나 모르는 사람들에게 방심하면, 비극의 역사가 되풀이 된다는 중요한 교훈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잊을 수 없으며 잊어서도 안 되는 이 전쟁은 원수를 원수로 갚는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로 민족통일을 이루어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7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별로 없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식이다. 북한은 3대째 세습하면서 대한민국에 대한 위협과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다.

그러나도 범여권의 170여 명의 국회의원들은 '종전을 선언 하자'고 한다. 종전(終戰) 선언은 북한으로 하여금 침략의 기회를 더해줄 것이라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삼인 폭력, 독재의 김일성 정권이 만들어낸 6.25와 같은 전쟁을 다시 겪지 말아야 한다. 6.25전쟁 70주년을 맞는 올해 진정으로 한반도에 평화적 통일을 원한다면, 대북관의 변화가 필요하다. '햇볕정책' '완중주의' '온정주의'로는 안 된다. 유엔군으로 참전하였던 국가들과 특별히 한·미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고, 원칙 있는 대북관계를 통하여 북한의 변화물이 이끌어내야 한다.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평화는 북한 주민들이 70년 넘게 공산주의 독재, 김씨 왕조의 독재와 억압 아래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북쪽의 일 남의 일로 여겨서는 안 된다. 그 기나긴 세월, 극한 고통과 인권 유린으로부터 북한 주민을 구해내야 하는 시대적, 역사적 사명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는 정권에만 맡길 수 없는 엄정한 국가·국민·시대적 사명임을 인식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한다.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 편집 고문 : 정취위원장 조몽목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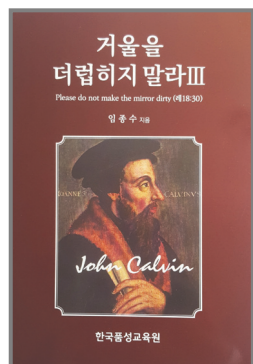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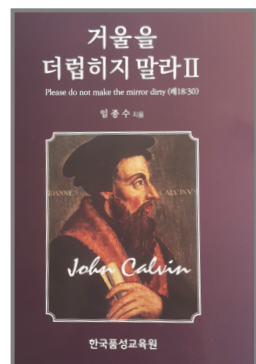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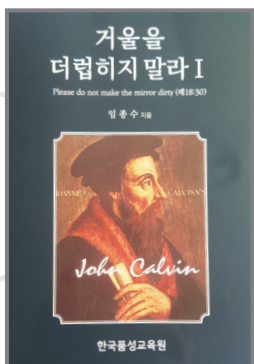
● 발행 겸 편집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 인쇄인 : 배성환

● 연락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 ▶ (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504)027-0897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길 5

●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계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믿음은 구원으로 인도하고 품성은 행복과 성공으로 인도한다



품성은 성공과 행복의 열쇠이다. 품성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올바른 일을 하고자 하는 내적 동기이다.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유는 영적인 면만 강조하고 육체를 가진 인간의 삶에 대해서는 등한시하여 삶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철야 기도를 마치고 귀가하면서 남의 밭에 고추를 따가는 생활이 그 대표적인 이야기이다. 그래서 저자가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영적훈련을 해야 하겠다는 마음으로 품성에 관한 책자를 7권 출판하였다. 최근에 출판된 '거울을 더럽히지 말라' 1,2,3권을 소개한다.

강의 안내

각 교회에서 시행되는 각종 중직자 세미나
 각 지역에 거주하는 목회자들의 소 구름

책 구입처

cslim4305@gmail.com 임중수 원장
 재무담당 이미란 이사 010-8618-9982
 계좌번호 농협 351-0771-1742-13
 한국 품성교육원

“ 제1권 품성과 비슷한 덕목인 성격, 덕성, 인격, 개성을 바울은 어떻게 개발하였는가? 이조 500년 유교와 고려 500년 불교가 만들어낸 윤리 도덕이 무엇인가? 기독교의 윤리부문 7가지와 자기 개발의 부문에 필요한 10가지를 논하였다.

“ 제2권 대인관계 부문 10가지와 신사적인 성도가 되기 위한 품성 4가지와 문제해결을 하기 위한 품성과 더 좋은 것과 가장 좋은 품성이 무엇인가를 논하였다.

“ 제3권 부정적인 품성 6가지와 영적전쟁의 품성 10가지와 신자가 물리쳐야 할 세력들 즉 전과 곳, 자살, 인종차별과 이단척결을 논하였고, 올바른 생활을 위한 실천분야 5가지를 논하였다. 만약 이 책을 매일 한 과씩 훈련한다면 훌륭한 신자가 될 것이다. 곧 새 언약과 품성과 자유의 대 헌장 두 권이 출판 될 것이다.